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

2025

DECEMBER



V01.002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식지

소식의 순서

📌 인사말

✉️ 선배님들의 편지

궁금하다! 학부

궁금하다! 대학원

궁금하다! 교수님들

장학금

SO:WE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SO:WE



학과장님의 인사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천하며 헌신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졸업 후에도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해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은 우리 학과의 역사이자 자긍심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학문이며, 돌봄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이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여러분의 경험은 우리 학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후배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생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학과의 최근 소식을 전하며, 동문 여러분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교육과 연구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을 고민하며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연구·실천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했던 사회과학대학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수많은 강의와 토론, 고민과 성장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현재의 사회대 건물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기억과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워왔던 동문 여러분의 시간 또한 학과의 역사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이지만, 그 위에 쌓일 학과의 정체성과 가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속선 위에 있을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언제나 동문 여러분의 출발점이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 축적해 온 경험은 학과와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영감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과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취와 학과의 성장이 함께 어우러지며, 사회복지의 가치가 더욱 넓고 깊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드림

2025년 12월
학과장 강성완 올림



동문회장님의 인사말

인과응보,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로부터

박종석 (85학번, 삼성금융파트너스 부울경지사 대표이사)

저는 2025년부터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총동문회장을 맡은 박종석입니다. 학과 동문 소식지를 통해 동문 선후배님들과 동기들에게 인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학과 창설 55주년이자 제가 입학한 지 40주년이 되는 올해, 제가 동문회장으로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인과응보'입니다.

저는 200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강연장에서 들은 말을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달려왔습니다. 목표를 작게 잡으면 작게 달성하고, 크게 잡으면 크게 달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저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목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직원들과 사회를 위한 꿈은 원대하게 정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데 진짜 멘토가 되겠다는 꿈을 정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점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재학 시절 배운 사회복지 마인드를 계속 소중히 고수했다고 자부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케이스워크에서 배운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인간관계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케이스워크를 포함한 소셜 워크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소셜 워크를 잘 다진 후배라면 어느 분야에서도 촉망받는 인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후배 여러분. 학과 총동문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총동문회는 여러분을 아낌없이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선후배의 정 계속 이어 나갑시다.

2025년 12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문회 회장 박종석 올림



학생회장님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안채희입니다. 항상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의 학생회장 생활은, 제 옆을 지켜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교수님들,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조교님, 학과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달려준 이현준 부학생회장과 우리 SO:WE 부원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소식지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 학과의 다양한 활동들과 학우 여러분, 교수님들, 동문분들을 되돌아보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얼마나 멋진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학과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의 시간은 이를 깊이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SO:WE의 복지부원이자, 곧 2026학년도 학생회장이 될 김민서 학우에게도 다가올 2026년이 많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학생회장 안채희 올림



원우회장님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이영주입니다. 원우회는 2009년을 시작으로 학생들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권익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대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원우회는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우회는 일반대학원 전기 및 후기로 입학한 신입생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를 학기별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요 행사 및 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강과 종강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대학원 재학생들이 모두 모여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 발표회를 진행하여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면서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지지 덕분에 원우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석·박사 학생분들의 대학원 생활과 연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우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원우회장 이영주 올림

선배님들의 편지

띵동 ~ 05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김수영 선배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05학번, 석사 09학번, 박사 14학번으로 졸업한 김수영입니다.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기로 마음먹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학부 시절, 실천 현장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과, 대학원 진학을 통해 연구자로 일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3, 4학년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길이 더 편안하고 즐겁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중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아 여러 차례 강의의 경험도 쌓아갔고, 이를 통해 연구와 강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vs 강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둘 다 경중을 따지기 힘들만큼 저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는 주로 혼자서 탐구하는 과정이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연구주제를 도출하고 결과가 산출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질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반면, 강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소통을 통해 저 역시 배우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발표나 토론 중,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내고 방안을 마련하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Q 대학 시절 현재의 진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실천과 정책 사이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조연을 구해보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직장체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연을 구하기 위해 학과 졸업생 선배님들, 대학원 선배님들, 학과 교수님들에게 여러 차례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황보람 교수님께서 마련해주셨던 대학원 선배님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가진 강점과 미래 비전에 대해 확신을 갖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과 교수님, 선배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빛나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늘 그리운 모교의 따듯함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오늘도 성장해나가겠습니다. 후배님들, 응원합니다!

선배님들의 편지

띵동 ~ 05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김영주 선배님의 편지 <1>

Q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하고 싶은 업무를 선택해서 담당할 수 있나요?

복지관에 근무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고 싶은 업무를 바로 "선택"해서 맡는 구조는 아니에요. 보통은 기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먼저 맡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복지관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초록우산에 입사한 후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부산교육센터를 거쳐 현재는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제가 사람을 교육하는 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는 일에 강점과 흥미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현장을 거치며 쌓은 경험들이 지금의 제 역할로 이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단단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께도 "처음 맡는 업무가 꼭 내가 평생 할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의 경험이 결국 나만의 전문성을 만들어준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일하여 워라밸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궁금해요!

사회복지사는 맡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근무 시간이 항상 '9시~6시'로 딱 맞게 지켜지지는 않는 직업입니다. 저 역시 올해 복지관에서 맡은 업무 중 하나는 "동구 어린이식당" 사업이에요. 저녁 시간대 어린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도 종종 있지요.

하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PC-OFF 제도, 한 달에 한 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운영되고 있고,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 덕분에 바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근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지만, 그만큼 나 자신도 잘 돌볼 수 있어야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딩동 ~ 05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김영주 선배님의 편지 <2>

Q 실습이나 인턴 경험이 취업이나 현장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저도 학부 시절에는 주변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저 역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공무원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실습을 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천 방법들이 실제 복지관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 경험이 제게는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초록우산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꼭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자원봉사와 인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준비한 끝에 지금의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여러분께 실습이나 자원봉사 시간이 단순히 스펙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를 진짜로 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누가 시켜서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고 그리던 것을 직접 기획하고 현실로 만들어낼 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초록우산은 단순히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고민하고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조직입니다.

키즈카페가 하나도 없던 부산 동구 지역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처음으로 만들고, 편의점조차 없던 높은 산만디에 무인 라면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일상의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평소 냉장고 속 반찬으로 혼자 끼니를 해결하던 아이가 어린이식당에서 친구들과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처음 보았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제 주도적인 도전을 믿고 지지해주는 탄탄한 조직과 따뜻한 동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정작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후배들을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좋은 현장의 세계를 더 많은 후배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접점이 많지 않다는 것이 늘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로 실습,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후배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사회복지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편지

띵동 ~ 05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장은영 선배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교의 소식지를 통해 만나 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일반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05학번 장은영입니다.

학부생 시절, 저는 사회복지 전공지식과 저의 개인적인 적성 및 역량 사이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국 남들과는 조금 늦게 길을 결정하여 졸업을 두 달 앞둔 시점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지금의 자리에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높은 고용 안정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큰 장점으로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동문으로서 저에게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공익을 실현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행정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학부시절 쌓았던 **전공 지식**은 지금도 여전히 행정시스템과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대민행정의 기본이 시민을 위한 복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은,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은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사회복지학적 통찰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공무원 시험은 단거리 달리기보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꾸준히 정해진 공부시간을 확보하여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지닌 **사회복지인**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배님들의 편지

띵동 ~ 05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최영아 선배님의 편지 <1>

Letter

사람 곁에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길

2005년, 설레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스무 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설렘과 막연함 속에서 '사람을 돕는 일'을 배우고자 했던 그때의 마음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타인을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사회복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와 무게를 더해 갔습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론' 수업은 제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매료되었고, 그때부터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는 일'로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보편적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면,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 현장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개입하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에 가깝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상담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며, 환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퇴원 계획을 세우며, 임상 업무 외 사회공헌활동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 기관에서 1년간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지요.



Senior

띵동 ~ 88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이수경 선배님의 편지 <1>

Letter

사회복지학과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울경총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전공, 과연 잘 한걸까?”

“**사회복지사**는 정말 행복한 직업일까, 아니면 너무 힘든 직업일까?”

저 역시 대학 시절, 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초록우산**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지금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와서 **초록우산** 부산본부장으로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34년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초록우산** 같은 대형 NGO에서 일한다는 것은 안정된 조직 안에서 사회적 약자(특히 아동)를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기업, 언론, 학교,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며, “내가 하는 일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변화 시키고 있다**”는 보람을 매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보람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 한 명의 변화**에서 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 곁에 있어 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초록우산**을 만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이유를 확신하게 되고, 이런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과 팀을 갖춘 곳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정책과 제도로 확장해 간다는 점에서 **초록우산**은 사회복지 전공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터입니다.

Senior



선배님들의 편지

딩동 ~ 88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이수경 선배님의 편지 <2>



만약 대형 NGO 취업을 준비한다면 기초 실무력외에 어떤 차별화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사회이슈와 아동권리에 대한 자기 관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빈곤, 교육, 사회제도 관련 기사와 정책을 꾸준히 보고, 느낀 점을 메모해 두세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를 자기 신념과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스토리텔링 역량을 키우기 바랍니다. NGO는 후원자와 기업,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사실을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글과 발표를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본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교내 캠페인, 동아리 프로그램 등 기획-홍보-진행-평가를 모두 해 본 경험은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현장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직접 해본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초록우산에서 부회장까지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속스럽지만 얘기해 보자면...

항상 왜(Why) 하는가?, 어떻게(How) 해야할까? 라고 목적과 방법을 찾는 질문을 자문자답하면서 답이라고 판단되면 망설임없이 실천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과 가정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동가족상담실, 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인재양성 아이리더사업, 상담코칭 V-GROW 대화모델등을 최초로 기획하고, 초록우산뿐 아니라 전국 사회복지현장에 확산시키고 모델이 되는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과 도전, 실천해 왔던 시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에 소중한 흔적들이 된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편지

띵동 ~ 88학번 선배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이수경 선배님의 편지 <3>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며 휴먼서비스이니,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워서 언젠가 같은 자리에서 **좋은 선후배**로 만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후배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Lined writing area for the letter.





1. 학생회를 소개해요!



- **SO:WE**
- 학생들의 **소망**을 실현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학생회
- **SOCIAL WELFARE**

기획부

- 학과 행사 기획 및 기획안 수립
- 행사 장소 대관 및 운영 지원
- 행사 진행·운영 총괄

복지부

- 사물함 대여 사업 운영
- 사복지니 운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리
- 사복랜드 운영: 학과 보유 강의 도서 대여 사업
- 대여사업 운영: 생활물품 대여

홍보부

- SNS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및 행사 홍보 게시
- 콘텐츠 제작: 포스터, 소식지 등 제작
- 월간지 제작: 학과·학생회 주요 소식 발간
- 시각 자료 제작: 현수막, 행사 PPT 등 제작 지원



2. 지금 우리 학부는

#1 수시모임

일시: 2025년 1월 31일
장소: 보드게임카페, 여러 놀거리

사회복지학과 수시 합격자분들과 함께 보드게임카페를 가고 식사도 하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신입생 OT

일시: 2025년 2월 5일
장소: 성학관 502호

신입생분들에게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 학과와 학생회 소개를 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뒤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3 2025 전기 학위수여식

일시: 2025년 2월 18일
장소: 성학관 101호

2025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OT 후 뒤편이



2. 지금 우리 학부는

#4 새내기 배움터

일시: 2025년 2월 19일
장소: 통영 마리나 리조트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가 통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다른 학과 학우, 그리고 우리 학과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5 개강총회

일시: 2025년 3월 7일
장소: 성학관 502호

학생회와 대의원 소개를 하였으며, 교수님들을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총대를 투표 하였으며, 후에 뒤풀이를 했습니다.

#6 사복X미کم 연합 신입생 환영회

일시: 2025년 3월 21일 - 22일
장소: 디아모, 다다민박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와 함께 송정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달빛 데이트를 통해 우리 학과, 더 끈끈해졌어요.



개강총회 후 뒤풀이



궁금하다!

2. 지금 우리 학부는

#7 만우절 이벤트

일시: 2025년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학생회 SO:WE가 아닌 SO:WHAT?으로 하루 활동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가장 개성을 잘 드러낸 학우분들께 상품을 증정하였습니다.



#8 사회대 출범식

일시: 2025년 4월 3일

장소: 경제통상관 앞 도로

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대의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즐길 거리가 있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9 1학기 중간고사 간식 행사

일시: 2025년 4월 17일

장소: 예원정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삭토스트의 햄치즈 토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예원정에서 학우들과 함께 앉아 도란 도란 토스트를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과가 출범식 1등 했어요!



2. 지금 우리 학부는

#10 스승의 날 기념 행사

일시: 2025년 5월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들께 꽃다발을 드리고, 학생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성년의 날 기념 행사

일시: 2025년 5월 19일

성인이 된 사회복지학과의 신입생들에게 간식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초콜릿, 쿠키, 과자를 알차게 담아 신입생들의 사물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12 사복인의 밤

일시: 2025년 5월 23일

장소: 해운대 아르피나

아르피나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저녁에는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요트 탑승을 하였습니다.



성년의 날 간식



사복밤 때 탔던 요트



궁금하다!

2. 지금 우리 학부는

#13 1학기 기말고사 간식 행사

일시: 2025년 6월 16일

장소: 사회관 과방

기말고사 시즌을 맞아 사회복지학과 과방에서 크로와상 간식을 배부하였습니다.



#14 부산대-리츠메이칸대 학술 교류

일시: 2025년 7월 29일

장소: 성학관 102호

일본의 리츠메이칸대와 한국의 부산대가 만났습니다. 학술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후에 리츠메이칸대 학우들과 함께 회식을 갖습니다.

#15 2학기 중간고사 간식행사

일시: 2025년 10월 14일

장소: 예원정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학생회가 함께 중간고사를 맞아 간식 트럭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이스리, 커피, 회오리 감자, 핫도그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立命館大学の学生たち
ようこそ韓国へ!

부산대-리츠메이칸대 학술교류 프로그램
2025.07.29, 성학관 102호



부산대 X 리츠메이칸대



2. 지금 우리 학부는

#16 문창제

일시: 2025년 11월 6일

장소: 예원정

사회대의 축제, 문창제에서 우리 학과는 타로와 소 개팅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부스들이 있었지만, 당당히 우리 학과가 수익 1등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7 사회복지, 심리, 아동가족 교류회

일시: 2025년 11월 13일

장소: 성학관 507호

'세콤달콤 복심야: 한 입 할래?'의 제목으로 교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학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뒤풀이를 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 공동실습

일시: 2025년 11월 14일

장소: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 부산남구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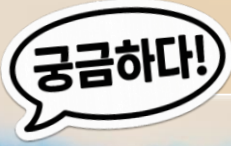
NGO 기관인 초록우산과 사회복지관인 부산 남구 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의 일에 대해 배웠으며, 두 기관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초록우산 공동실습

문창제 타로부스





2. 지금 우리 학부는

#20 스터디 모임 장려 사업 '사복행'

일시: 2025년 9월 - 11월

사회복지학과 학우분들의 스터디모임을 장려하는 사업 '사복행' 을 9월 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우수 활동팀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21 미니홍커밍데이 (학술제)

일시: 2025년 11월 28일

장소: 성학관 1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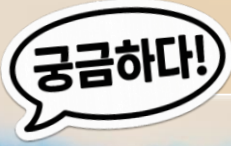
11월 28일, 학과, 학생회, 동문회는 사회관 신축을 앞두고 그동안 정들었던 사회관과 예원정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70년대에 부임하신 김기래, 문선화 명예교수님, 1980년대에 부임하신 김동국, 신복기 명예교수님, 그리고 1990년대에 부임하신 박병현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당시의 잊지 못할 기억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졸업, 행정고시 합격과 취업을 위해 몸소 애쓰신 일화들, 동료 사회복지사로서 평생 제자들과 함께해 오신 모습, 그리고 학생회장 당선, 본교 전체 수석 졸업,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제자들까지 일일이 기억해주는 모습은 오늘의 학과가 있기까지 초창기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깊은 애정과 헌신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2008학번으로서 2010년대 이후 사회복지현장과 공공기관에서 활동해 온 윤범준, 제한명 선배님의 진로, 직무 체험담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과 보람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총동문회에서 고급 수건과 빵을 후원해주신 점 또한 오래 기억에 남을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이날 저녁식사 자리에는 졸업생 20여 명, 재학생 80여 명, 그리고 전·현직 교수님 13분이 함께하였습니다. 학과 창설 55주년을 맞는 해에 여러 세대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와 현재를 나누고 미래를 기약하는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될 '오늘의 명장면' 이었습니다.





2. 지금 우리 학부는

#22 2026년도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선거

일시: 2025년 11월 25일 - 27일

우리 학과의 2026년도를 빛내줄 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서 학우가 학생회장으로, 박담비 학우가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학생회 이름은 FINE로, 꽃이 '피네'에서 시작의 의미와, 악보에서 곡이 마침을 알리는 'fine'의 의미를 담아 우리 학우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단 후보

FINE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01 학과 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단독 MT 추진
 - 학과 행사 활성화 및 다양화
- 02 학우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 과방 및 실습실 확보 추진
 - 물론 대여사업 다양화
- 03 소통이 살아 있는 학과를 만들겠습니다.**
 - SNS 게시물을 통한 소식 및 정보 전달
 - 사내로그 Vlog 제작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복지나 운영'

투표 기간: 11/25일(화)~11/27일(목)





궁금하다!

3. 학과 동아리 '페어' 를 소개해요! <1>

개설목적

페어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총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봉사

▪ 대학생 서포터즈 (15명)

남광사회복지관의 서포터즈로서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하며,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보조, 외부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관 운영의 원활함을 돕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봉사 (8명)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에서 보조 교사로 참여하여 중학생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활동 준비, 질문 응답, 격려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성장의 경험을 돕고 있습니다.

▪ 그린라이트 (5명)

청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지도 및 보조 교사로서 수업 운영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돕습니다.

▪ 청소년 지원사업 (6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자아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 문화체험 프로그램(아쿠아리움, 방탈출 카페 등)을 함께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전하게 인솔합니다.



3. 학과 동아리 '페이' 를 소개해요! <2>

특별활동

▪ 링크업 멘토링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와 연계하여 한 팀당 8~12회의 멘토링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각 멘토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체험 활동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경험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 발룬치어링 참가

부울경 지역 대학생 봉사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워크숍 및 팀빌딩 프로그램에 7월 27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참여하였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함과 동시에 동아리 내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월간지 제작 및 SNS 업로드

신입부원 모집, 간식 행사 공지, 봉사활동 공유 등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월간지를 제작하고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활동 기록 및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과와 지역사회에 동아리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상내역



2021.11.16.

2021 부산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표창장



2023.11.30.

남광사회복지관 감사장



2022.11.19.

국회 표창장



2025.11.14.

2025 부산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표창장



궁금하다!

4. 학부생이 들려주는 교환학생 이야기 <1>



평소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해외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고, 저는 북유럽 **스웨덴**에 위치한 **쇠데르테른 대학(Södertörn University)**에서 한 학기를 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학교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과 인접해 있어 시내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갖춘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수업 건물과 도서관 건물로 나뉘어 있으며, 특히 도서관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서적을 제공하고 조별활동 공간도 잘 갖추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학기는 한 학기를 네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각 기간마다 1~2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하다!

4. 학부생이 들려주는 교환학생 이야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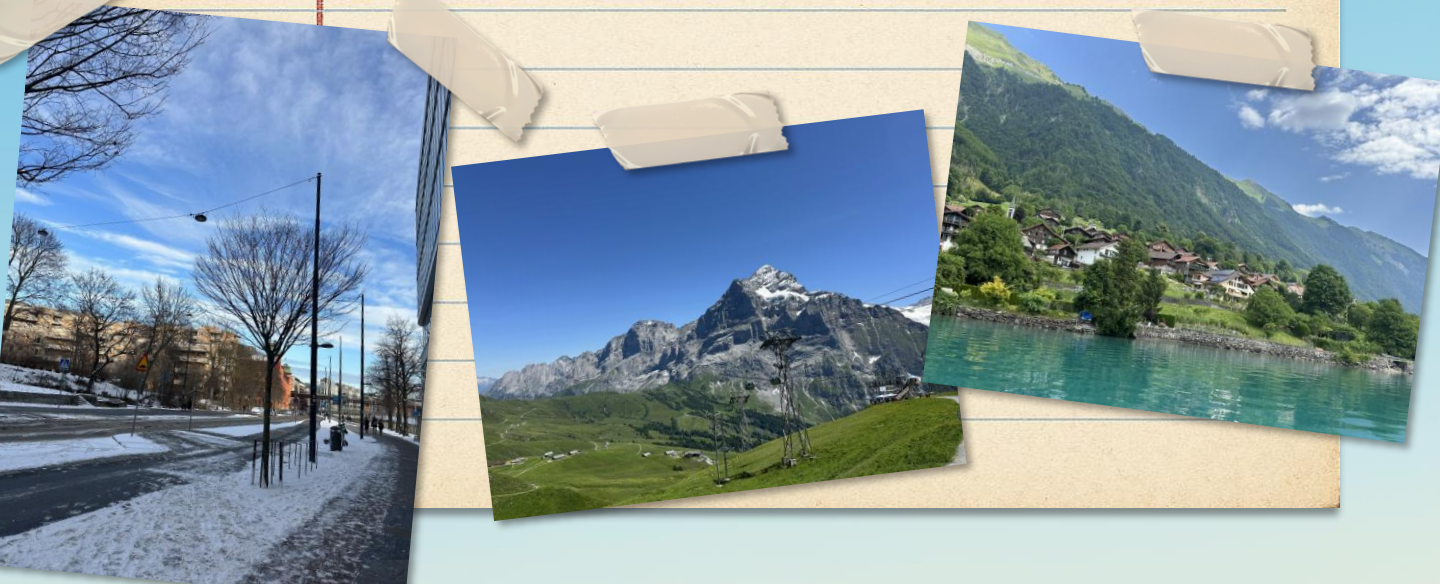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좋았던 점은 현지 학생들은 물론,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조별 과제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학생들과 조별과제를 수행하며 **스웨덴**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프랑스, 독일, 조지아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협업하는 과정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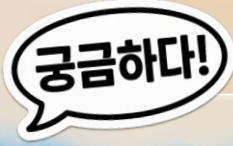


학업과 동시에, 휴일이나 공강을 활용해 **스웨덴**뿐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눈 덮인 산과 장엄한 오로라, 아름다운 폭포들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절경과 알프스를 내려다보며 느꼈던 여유는, 한국에서 바쁘게 지내던 제게 잊지 못할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학우분들, 혹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휴식을 원하는 분들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랬듯, 여러분께도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5. 2025년도 2학기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 기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부산뇌병변복지관
금샘마을지역아동센터	부산종합사회복지관(로사)
금정구노인복지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순천시이편한세상순천다함께돌봄센터
남구노인복지관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누리지역아동복지센터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
동구장애인복지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가족센터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울주군서부종합사회복지관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중앙지역아동센터
문현노인복지관	총주시니어클럽
백양종합사회복지관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봉생기념병원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실습 지도와 협조해주신 기관 및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다!

지금 우리 대학원은

#1 BK21 FOUR 교육연구단 성과공유회

일시: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BK21 FOUR 교육연구단은 5차년도(2024년) 연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수진과 연구인력, 대학원생들이 모여 연구 성과와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해외연수를 나간 대학원생의 영상을 통해 국외 대학에서의 연구 및 생활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 1학기 신입생 환영회

일시: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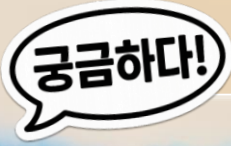
2025학년도 대학원 전기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학과의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연구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대학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함께할 연구 공동체로서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3 스승의 날 행사

일시: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수님들의 노고와 가르침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진로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사제 간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학문적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원은

#4 1학기 학위 논문 발표회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석·박사 졸업 예정자들이 자신의 학위논문을 소개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후배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구성 방식과 연구 진행 단계를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5 2학기 신입생 환영회

일시: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2025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신입생들이 대학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소개 및 연구 과정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교수님 및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원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을 나누고 학업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최송식 교수님

최송식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경현실버아카데미
주임교수로 지역 노인교육 활성화와 발전을 주
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실천회 편
집위원장으로 학슬지의 전문성 제고와 학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영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은 올해 11월 부산대학교 학생처장으로 임명되어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증
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국 쓰촨대학 국제과정주간에서 초빙교수로
'Aging, Work, and Education' 과목을 수업하셨으며, 청두대학에서 여름학기 강의를 수
행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된 '스마트 노인돌봄 국제 심포지엄(Smart Elderly Care
International Symposium)'과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회
의(28th Asia Pacific Social Work Conference)'에 참여하시는 등 사회복지의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5 교외 장학금

장학명	수혜학생 현황
류기형 교수님 장학금	1명
총동문회 장학금	2명
재단법인 서원나눔 장학금	3명
대선공익재단 장학금	3명
NH농협은행 장학금	1명
부산부녀장학회 장학금	1명
유한재단 장학금	1명
좋은데이 발전기금 장학금	1명
남동현 장학금	0명
죽암장학재단 장학금	1명

류기형 교수님 장학금

79-15 재임하신 故 류기형 명예교수님께서
기탁하신 기금의 장학금으로 매년 수석졸업생에게 수여됨

남동현 장학금

08 학부 입학, 12 석사 입학한 故 남동현군의 부모님께서
기탁하신 기금의 장학금으로, 학부 졸업후 석사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됨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

V01.002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식지

Good Bye!
2025

기획 및 편집: 안채희

디자인: 강다오

발행: 동문회, 원우회, 학생회